



2018학년도 경희대학교

모의논술고사 문제지(인문·체능계)

지원학부(과) ()

수험번호

성명 ()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마시고 특별한 표시를 하지 마시오.
2.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쓰지 마시오.
3. 답안 작성과 정정은 반드시 본교에서 지급한 필기구를 사용하시오.
4. 본교에서 지급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답안지에 특별한 표시를 한 경우, 지정된 분량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점 또는 0점 처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등)
5. 답안 정정 시에는 원고지 교정법에 따라야 하고 수정액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감점 또는 0점 처리합니다.
6. 찍어쓰기를 포함하여 각 문제별로 요구한 분량 이내로 논술하시오.
7. 인문·체능계열 문제지는 총 1장 2쪽입니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영화 ‘모던 타임스’는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 소외 문제를 고발한다.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감시할 정도로 지배적인 자본가와 기계처럼 일하는 노동자, 컨베이어 벨트와 기계 등은 당시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영화에서는 점심시간도 줄이고 심지어 밥 먹는데 드는 에너지까지 줄인다고 소개되는 노동자 급식 기계가 나오는데, 이는 기계에 의해 지배되는 인간의 소외된 모습을 보여 준다.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은 이름이 없고, 주인공이 일하는 공장에서도 오직 행과 열로 그 사람을 호칭할 뿐이다.

거대한 기계 장치에 달려 들어가는 찰리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담은 장면에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 의해 기계의 일부가 되어 가는 찰리의 모습이 드러난다. 기계는 노동자의 소유가 아니므로, 노동자는 자신의 것이 아닌 기계에 의해 철저하게 종속된 존재로서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다. 찰리는 자신이 만든 상품을 가져갈 수도 없다. 완성된 순간부터 상품은 자본가의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는 생산물에 지배당한다고 할 수 있다.

[나]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대상화시키고, 이렇게 대상화된 세계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인식한다. 또한 자신의 소질을 발휘하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동을 하며, 노동의 과정과 그 생산물에서 자신의 힘과 모습을 본다. 인간은 자신의 활동을 스스로 뒤돌아보고 이를 통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자기의식을 지닌 존재다. 이처럼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유로운 활동인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며, 노동의 결과물들을 통해 자기를 의식한다. 노동은 단지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계기다. 즉, 노동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본질적 행위인 것이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노동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노동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활동이자 보편적인 삶의 활동이다. 노동 과정은 인간 삶의 특정 형태와는 무관하며, 인간 삶의 모든 사회적 형태의 공통된 것이다. 노동은 특정 사회에서만 아닌 모든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활동이다. 물론 그 사회가 봉건제 사회인지 아니면 자본주의 사회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노동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삶의 활동으로서 노동은 모든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행해진다.

[다]

플렘의 도시 프라하에서 활동하던 소설가 카렐 차페크는 1920년 『로섬의 만능 로봇』이라는 작품에서 처음으로 ‘로봇’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로봇은 체코어로 ‘강제 노동’, ‘노예’를 뜻하는 ‘로보타’(Robota)에서 왔다. 이 희곡에서 로봇들은 로섬의 공장에서 인간을 위해 일하도록 고안됐는데, 반란을 일으켜 인간을 정복한다. 그런가 하면 영화 <메트로폴리스>에 등장하는 ‘기계인간’은 인간과 기계의 근본적인 차이를 묻는다. 기계 같은 삶을 사는 인간과 인간 같은 생각을 가진 기계. 누가 더 불쌍한 것일까?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능을 가진 기계로 다시 한 번 수천, 수만 배 더 편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 보치오니 같은 미래파 화가들도 인간보다 기계, 사랑보다 속도를 선호했다. 물질과 자동차와 엔진. 촌스럽고 유치하고 시시콜콜한 인간들의 이야기는 잊어야 한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모던해야 한다고.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숭배해야 한다고. 하지만 인간은 두렵다. 우리보다 더 강하고, 똑똑하고, 현명할 미래의 기계를 나약한 인간이 통제할 수 있을까? 인간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할 기계들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볼까? 인간은 기계를 지배할 자격이 있을까?

수많은 할리우드 영화에서 기계는 지능을 가지는 순간 인간을 공격하고 멸종시키려고 달려든다. 운 좋아봐야 컴퓨터에 연결돼 인간이 여전히 지구를 지배하고 있다는 꿈을 꾸며 살게 한다. 그래서일까? 세계적 로봇공학자 모라베츠는 주장한다. 인간이 동물을 지배하듯, 인간보다 우월한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기계들이 선심을 베푼다면 우리는 애완동물 정도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 것 이라고.

< 뒷면에 계속 >

[라]

고용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한때 사람만 담당할 수 있었으나 이제 새로운 기술이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이 지나치게 많다고 우려한다. 그래서 사람에게 남는 일이 지금도 적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적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들은 인간과 기계 중 누가 특정 작업에서 우위를 보이느냐 하는 질문에만 주목한다. 이들은 새로운 기술이 산출량과 수행해야 할 작업량을 늘릴지, 그리고 새로 나타난 작업의 본질상 사람이 우위를 유지할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과거에 맡았던 작업 중 일부를 앞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깨달았다는 데서 이들 비관주의자는 옳다. 하지만 수행해야 할 작업이 새로 생길 것이고, 새로 생긴 작업에서 인간이 여전히 우위를 지닐 수도 있으며, 정말 그렇다면 사람이 할 일이 새로 생기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무시한다는 데서 이들 비관주의자는 틀렸다.

이번에는 낙관주의자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들은 비관주의자들이 ‘노동총량의 오류’에 근거를 두고 설명한다고 주장한다. ‘노동 총량의 오류’란, 합당한 급여가 지급되는 일자리 개수는 고정되어 있고 주어진 노동 ‘총량’을 사람과 기계가 나눠야 한다는 생각을 가리키는 경제학 용어다. 낙관주의자는 그런 생각이 틀렸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기술의 생산성이 높다면 산출량은 늘어날 것이다. 그로 인해 해야 할 일 역시 늘어날 것이며, 따라서 사람이 할 작업도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노동 ‘총량’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합당한 급여가 지급되는 일자리 수는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

[마]

매일 오후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은 거인의 정원에 가서 놀곤 했다. 그것은 부드러운 풀밭이 있는 넓고 아름다운 정원이었다. 풀밭 여기저기 아름다운 꽃들이 별 떨어처럼 피어 있었다. 스무 그루나 되는 복숭아나무들도 있어서, 봄이면 분홍빛과 진주빛의 여린 꽃들을 피웠고, 가을이면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나무에는 새들이 찾아와 어여쁘게 지저귀었고, 아이들은 이따금씩 놀던 것도 잊고 그 소리에 귀 기울였다. “여기 있으니 정말 행복해!” 아이들은 신이 나서 소리치곤 했다.

어느 날 거인이 돌아왔다. 그는 콘월에 사는 친구 식인귀(食人鬼)를 방문하여 7년 동안 그와 함께 머물렀었다. 7년이 지나자 그는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 버려서 더는 할 얘기가 없었고, 그래서 자기 성으로 돌아올 결심을 했던 것이다. 돌아와 보니, 아이들이 정원에서 놀고 있었다. / “여기서 뭘 하는 거냐?” / 그는 아주 통명스럽게 고함을 질렀고, 아이들은 달아나 버렸다. / “내 정원은 내 정원이야. 누구나 다 아는 일 아닌가? 나 말고는 아무도 여기서 놀 수 없게 하겠어.” / 그래서 그는 정원 둘레에 높은 담장을 세웠고, 경고문을 써 붙였다.

‘무단 침입 엄금!’

그는 오직 저만 아는 거인이었다. / 가엾은 아이들은 이제 놀 곳이 없었다. 길거리에서도 놀아 보았지만, 길은 먼지투성이인 데다가 딱딱한 돌맹이들이 많아서 별로 좋지 않았다.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은 높다란 담장 주위를 서성이면서 그 안에 있는 아름다운 정원에 대해 이야기했다. / “저 안에서는 정말 행복했는데!”

봄이 왔다. 온 나라에 작은 꽃들이 피어나고 작은 새들이 찾아왔다. 하지만 거인의 정원만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아이들이 없었으므로, 새들은 노래하러 오지 않았고 나무들은 꽃피우기를 잊어버렸다. 한번은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풀밭에서 고개를 들었지만, 경고문을 보고는 아이들에게 미안한 나머지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 잠들어 버렸다. 그러자 신이 난 것은 눈과 서리였다. / “봄은 이 정원을 잊어버렸어. 이제 우린 1년 내내 여기서 살 수 있어.” / 그들은 환성을 질렀다. 눈은 크고 하얀 외투로 풀밭을 덮어 버렸고, 서리는 나무들을 은빛으로 칠했다. 그러고는 자기들과 함께 지내자고 북풍을 초대했다. 봄은 결코 오지 않았고, 여름도 마찬가지로 없었다. 가을은 모든 정원에 황금빛 열매들을 가져다주었지만, 거인의 정원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바]

인공지능이 발달해 인간보다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지는 역사적 기점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들은 인공지능이 영화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 같은 존재가 되어 자신보다 하등한 존재인 인간을 지배하려 들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한다. 그러나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슈퍼 비즈니스 기업들은 오히려 이런 상황을 기회로 만들고자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사물인터넷은 이성주의, 합리주의를 대표하는 이론적, 디지털 휴머니즘을 상징하지만 이 사물들과 그들의 인공지능을 매개체로 사용하는 인간들은 존엄성을 더욱 키워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한 것이다.

알파고의 승리를 평가하면서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결 구도를 묘사하는 글들을 봤다. 그 내용이 재미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극복해야 할 미래의 도전이 아니라 인간이 사용하고 협업해야 할 현실적인 도구이기 때문이다. 알파고의 승리는 인공지능의 승리가 아니라 인간의 승리이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글의 승리다. 구글은 알파고를 통해 인간과 인공지능이 어떻게 협업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문제 I]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논지의 차이를 서술하시오. [601자 이상 ~ 700자 이하 : 배점 40점]

[문제 II]

제시문 [바]의 관점을 바탕으로, 제시문 [다], [라], [마]에 나타난 상황을 평가하시오. [1,001자 이상 ~ 1,100자 이하 : 배점 60점]